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의 사회 참여가
이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반복하는 2030 청년세대.

과연 그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먼저,
 청년들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 및 사회 활동의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다니기도 바빠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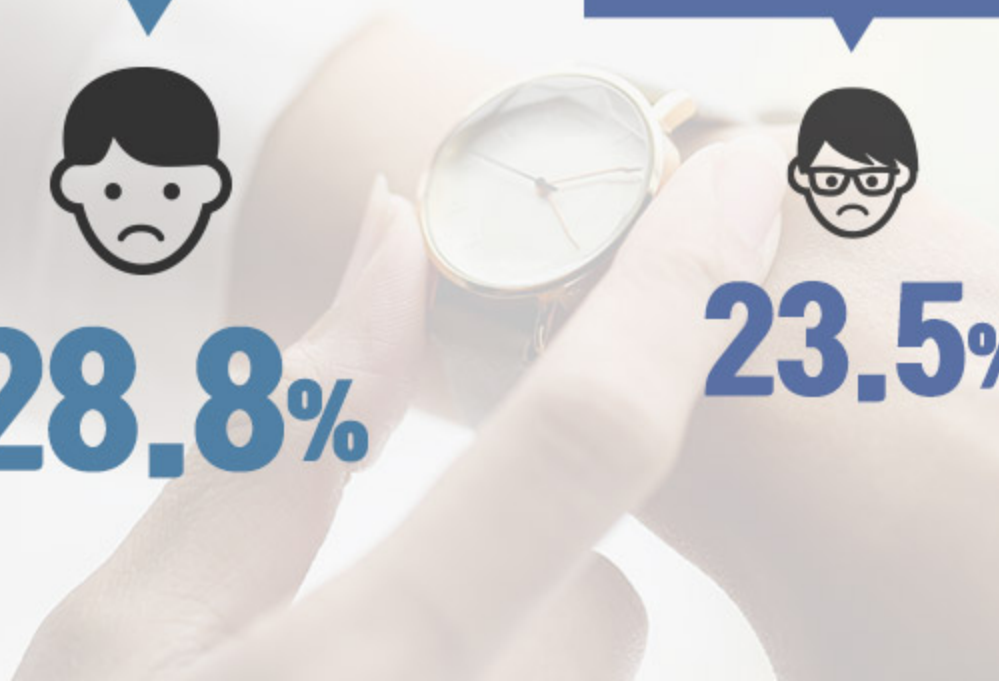


28.8%

이것저것 활동은 하고싶은데,
 돈을 모으느라 여유가 없어요.



23.5%



하지만 청년들은 친목 위주의 단체 및 모임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59.2%

여가활동 모임



63.8%

친목 및 친교모임



26.6%

자기계발 모임
및 스터디

이에 반해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치문제에 대해 대화나 미디어를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0%

관심있는 사회 정치 문제에 관해
주변 사람과 대화했어요



48.0%

기사나 블로그, 방송이나 유튜브로
관련 문제를 찾아봤어요



33.6%

해당 문제 서명에 참여했어요

※ 만 15~39세 국민 3,530명 중,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기준

이에 이어 청년들은 투표 참여 의사에 높은 의사를 보이며
간접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미디어에서 사회·정치 문제에
관해 찾아볼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특정 상품을 불매·구매해
의견을 표출할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18.3%

청년기본법 제정과
제도 활성화가
필요해요

17.7%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이
필요해요

12.5%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해요



청년세대의 원활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해
정치·사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세대의
행복한 사회 참여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